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3/19℃ 목포 3/15℃ 여수 6/17℃

단기 4344년 (음력 2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41호 1판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MB공약 동남권 신공항 결국 없던 일로

호남공약도 흐지부지 우려

F1 지원·상품거래소 설립 약속 등 미적미적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결국 백지화된 가운데 호남권 대선공약 사업 역시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지연,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호남권의 경우 J프로젝트와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한국민주주의 전당유치 등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과 호남권상품거래소 설립 등의 공약사업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비롯해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분야 12개 과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건뿐으로, 나머지 7건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오는 2013년까지 서남권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부산에 개관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3년정도 운영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서남권 분원 설립을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쌀과 친환경농산물, 금 선물 및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동북아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타당성 용역까지 마무리됐음에도 '상품거래소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이르고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해 광주를 동북아 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충북 오송의 공세에 밀려 공염불로 전락하고 있으며, 한국민주주의전당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추진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도권으로 입지를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세계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LED조명도시 조성 등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려던 대형 사업들도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제 17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14개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핵심 산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정부의 비협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현 정부 들어 특별법만 만들어 놓았을 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시각이다. 애초 지원을 약속했던 F1 경주장 건설비 358억원은 아예 없던 일로 됐고 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부지 양도·양수도 시급한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애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도 개발계획이 비슷한 새만금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KTX 광주~목포 구간을 2012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외쳤던 공약은 오송~광주 2014년, 광주~목포 2017년까지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헛말이 됐고,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을 내걸었던 무안기업도시 한중국제산단 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는 F1 적극 지원하라" F1대회 민간지원 단체인 F1범도민지원협의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30일 오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 지원 및 영암 F1 경주장 부지 간척지 양도·양수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수능 7년연속 최상위

작년 성적 분석…장성 표준점수 전 영역 1위

광주 일반계 고교의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실력 광주' 명성을 재확인 했다. 광주는 영역별 1등급 비율·표준점수 평균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면 15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표준점수 등이 중하위권을 맴돌았으나 장성, 담양 등 일부 군지역 학교의 성취도가 두드러졌다. 〈관련기사 6·7·8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수능 성적 분석결과 전체 수험생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시·도별 표준점수(평균)에서 언어,수리가·나, 외국어 등 4개 전 영역에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수능 응시생이 4800명에 불과한 제주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1위를 석권한 셈이다. 광주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수능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는 평균 표준점수에서 언어 104.3점, 수리가 105.1점, 수리나 104.4점, 외국어 104.9점을 기록,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4~5점 이상 높았다.

등급별 비교에서도 1·2등급 비율이 제주에 이어 최상위를 차지했다. 언어는 1등급 5.7%, 2등급 8.1% 등 13.8%, 수리가와 나도 각 13.3%와 14.3%였다. 외국어는 1등급 4.5%, 2등급 8.5% 등 13%로 서울과 함께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에 비해 3%~4%P 높은 수치다.

전남 일반계고의 평균 표준점수는 언어 99.5점(13위), 수리가 97.2점(11위), 수리나 99점(12위), 외국어 98.1점(15위) 등으로 16개 시도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외국어는 지난해 12위에서 3단계 추락하는 등 전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2등급 비율도 7.7%(수리가)에서 9.3%(언어)까지로 나타나 전국 시도 가운데 12위~15위를 차지했다.

1,2등급 전국 평균인 10%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적 상위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낮았다. 1,2등급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0.5%P~1.1%P 떨어졌다.

그러나 시군구 표준점수 상위 30위 안에 장성이 전 영역 부동의 1위에 올랐으며 해남, 담양 등이 순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표준점수 평균이 향상된 30개 지자체에 신안군이 언어영역에서 1위(10.5점)를, 함평군(수리나 6.3점, 외국어 6.1점)이 각각 3위를, 장흥군이 수리가(10.8점)에서 5위를 차지했다.

1,2등급 비율이 증가한 상위 지자체에서도 장흥과 담양 등이 전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수능 11월10일…영역별 만점자 1% 유지

올해 11월 10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을 유지하도록 난이도가 조정돼 지난해 보다 쉽게 출제된다.

하지만 선택과목수가 줄어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난이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원장은 30일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원장은 "올해 수능부터 응시 모집단 변화가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그러나 "탐구는 올해부터 3과목으로 선택과목수가 변경되는 만큼 응시자수 변동이 매우 심할 경우 만점자 1%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않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6월 모의평가를 봐야할 것 같다"며 "어쨌든 작년보다는 쉽게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교재 및 수능강의와의 연계율은 작년처럼 70% 수준이 유지된다. 영역별로는 수리영역에서 이과학생이 주로 보는 수리가형의 경우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모두 출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손학규 분당을 출마 선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0일 경기 성남 분당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4·27 재보궐 선거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확인하고자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이고 적이 돼가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바꿔야하며 그 책무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제 신념에 대해 분당구민들의 신임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변화의 대장정을 떠나도 될지 분당구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출마 결정으로 분당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으며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는 각 당의 권력구도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손학규 대표에 맞설 수 있는 필승카드를 내놓는다는 방침인 가운데 한 때 접었던 카드로 인식됐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입론이 되살아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